사계절 푸르른 양잔디와 함께…
HAMPYEONG DYNASTY COUNTRY CLUB
주중 비회원 예약 및 5인 PLAY 가능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6-21
TEL.(061)320-7800 예약문의 (061)320-7700,7777

위성미 추격

선두 오초아와 3타차 6언더 2위

■ 나비스코챔피언십 3R

'천만달러의 소녀' 위성미(17·나이키골프)가 메이저대회 우승에 한발 다가섰다.

위성미는 2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란초미라지 미션힐스골프장(파72·6천460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크래프트나비스코챔피언십 3라운드에서도 2위를 지켰다.

이날 위성미는 버디 1개와 보기 2개를 묶어 1오버파 73타로 다소 부진, 중간합계 6언더파 210타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틀 동안 선두를 달린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2타를 잃어버리며 9언더파 207타로 내려 앉아 타수차는 4타에서 3타로 줄어들어 역전 우승의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것.

까다로운 핀 위치와 단단하고 빨라진 그린, 더욱 두터워진 러프 때문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오버파 스코어를 내면서 뒷걸음친 이날 위성미도 샷이 흔들려 애를 먹었다.

특히 5m 이내 거리의 버디 찬스를 4차례나 놓친 것이 발목을 잡았다.

3번홀(파4)에서 1타를 잃은 위성미는 지루한 파행진을 이어가다 13번홀(파4)에서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티샷이 페어웨이 오른쪽 러프에 박히자 두번째 샷은 그린에 한참 못미친 왼쪽 러프에 떨어졌고 세번째샷은 제대로 스윙조차 못해 벙커에 빠져 버렸다.

벙커에서 건져낸 볼은 4m 가량 핀을 지나쳐 더블보기 위기에 몰린 위성미는 보기퍼트를 성공시키고는 마치 버디를 잡은 듯 기뻐했다.

이어진 14번홀(파3)에서 3m 버디를 뽑아낸 위성미는 그러나 남은 4개홀에서 잇따라 맞은 버디 기회를 살려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2003년에 이어 3년만에 최종일 챔피언조에서 최종 라운드를 치르게 된 위성미는 흰옷을 입지 않겠다고 말했다. 챔피언의 연못 다이빙 세리머니를 염두해 둔 역전 우승에 대한 욕심을 드러낸 셈이다.

안시현(22)은 선수들 전체 평균 타수가 74.9타에 이른 이날 1언더파 71타를 치는 선전 끝에 공동3위(4언더파 212타)로 껑충 뛰어 올랐고 올해 들어 준우승을 2차례나 차지한 이선화(20·CJ)는 2오버파 74타로 타수를 잃었지만 안시현과 함께 공동3위에 포진, 최종일 역전 우승의 디딤돌을 마련했다.

4언더파 68타를 뿜어내 안시현, 이선화와 함께 공동3위에 오른 나탈리 걸비스(미국)가 최종 라운드에서 오초아, 위성미 등과 동반 라운드를 치르게 됐다.

한희원(28·휠라코리아)은 공동8위(1언더파 215타)로 도약, 상위권 입상을 예약했다. 아마추어 돌풍의 주인공 안젤라 박(18)은 2오버파 74타로 부진했지만 공동11위(이븐파 216타)를 달려 아마추어 1위를 사실상 굳혔다.

한편 대회 2연패를 노리는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은 공동11위(이븐파 216타)로 내려 앉아 사실상 우승 경쟁에서 탈락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미켈슨, 벨사우스클래식 3R 선두

필 미켈슨(미국)이 PGA 투어 벨사우스클래식 우승을 눈앞에 뒀다.

미켈슨은 2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덜루스TPC 슈가로프코스(파72·7천293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때려 중간합계 21언더파 195타로 단독 선두를 질주했다.

2위 잭 존슨과 조너선 비어드(이상 미국.203타)를 무려 8타차로 따돌리고 선두를 굳게 지킨 미켈슨은 이로써 이 대회에서 처음으로 2연패를 달성하는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나상욱(22·코오롱)은 이븐파 72타를 쳐 합계 이븐파 216타로 공동63위에 그쳤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아쉽다! 버디…

위성미가 2일 미국 캘리포니아 란초 미라지에서 열린 LPGA 나비스코챔피언십 3라운드 17번홀 그린에서 버디를 시도하다 놓치자 안타까워 하고 있다.

■ KIA 시범경기 결산

"방망이는 좋은데 마운드가 글쎄요"

"타선의 집중력은 좋아졌는데 마운드가 영 개운치 않아서…."

KIA 서정환 감독이 오는 8일 대전에서 열리는 한화와의 정규시즌 개막전을 앞두고 장고에 들어갔다.

미국 플로리다 전지 훈련 후 타력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선발진이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KIA는 2일 광주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2006 프로야구 시범경기에서 5승6패1무, 5위의 성적을 거뒀다.

결과적으로 시범경기 동안 KIA는 '마운드 불안! 타선 맑음!' 의 전력을 드러냈다.

타선 집중력 살아나

이날도 KIA는 선발 그레이 싱어가 6.2이닝동안 10안타를 두들겨 맞아 타력의 지원을 받았지만 역부족이었다.

3-9로 뒤진 9회 KIA는 홍세완의 스리런포와 이재주의 투런포 등을 묶어 5득점 한 것이 위안이었다.

서정환 기아 감독은 'V10' 달성을 목표로 최근 신용카드 비밀번호 끝 두자리까지 '10'으로 바꿨을 정도로 올 시즌에 '올인' 하고 있다.

하지만 KIA는 지난해 보다 뚜렷한 전력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며 서정환 감독을 애태우고 있다.

우선 김진우-그레이-강철민-한기주가 4선발로 낙점받았지만 5선발이 마땅치 않다. 그렇다고 이들 4선발진이 신뢰가 가는 것도 아니다.

시범경기 12게임 동안 선발진 모두 제구력에 문제를 보이며 서 감독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3경기에 등판한 강철민은 12이닝을 던져 13안타, 사사구 9개, 14자책점으로 부진했다.

선발진 제구력에 문제

'황금팔' 한기주도 볼 스피드는 좋지만 4경기에서 2패를 당했고 김진우는 3경기에서 1홈런 12안타, 사사구 5개, 방어율 3.72로 신통치 않다.

하지만 집중력 있는 팀 타선만은 지난해 보다 비교 우위를 보이고 있어 서 감독의 불안감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있다.

'신입 용병' 서브넥이 홈런 1개, 14안타로 국내 야구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고, 'WBC 4강 영웅 이종범'도 상승세다. '안방마님' 김상훈은 찬스때마다 홈런포를 가동하며 팀 타선을 뒷받침하고 있고 부상에 시달렸던 홍세완은 홈런포를 터뜨리며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일 광주경기

한화	0	0	3	6	0	0	9
	0	0	0	0	0	0	8
KIA	0	0	0	0	0	0	0
	1	2	5	0	0	0	8

▲승리투수=김해님(1승)
▲세이브투수=양훈(1패1세이브)
▲패전투수=그레이싱어(1패)
▲홈런=고동진 2호(3회·1점·한화) 홍세완 3호(9회·3점) 이재주 4호(9회·2점·이상 기아)

이승엽 맹타

개막전 홈런 등 3경기 연속안타

일본프로야구 센트럴리그 개막전에서 결승타와 솔로포 등으로 화끈한 신고식을 치른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이 시즌 세 번째 경기에서도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이승엽은 2일 도쿄돔에서 벌어진 요코하마 베이스타스와의 3차전에서 1회말 첫 타석에서 우전안타를 터뜨려 3게임 연속안타를 터뜨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여행사 선호도 압도적 1위!(여행신문, 4604명 소비자 조사) | 8년 연속 해외여행 판매 1위!! 브랜드파워 2년 연속 1위!(한국능률협회) | 코스닥 상장 여행기업!
하나투어 1등 여행사
여행을 만나는 행복한 접속 www.HANATOUR.com
문의 및 예약 반도여행사 223-3032
전세계 할인항공권 판매
광주출발 >> 대마도
199,000 ▶4/9,16,23 대마도 크루즈여행(등산상품)
광주출발 ➡ 싱가폴 | 장가계 | 백두산 Special Tour
광주출발 >> 싱가폴
[정통] 싱가폴/바탐/조호바루 5일
899,000 부터 ▶매주 월,화,목,토요일
광주출발 >> 장가계
[정통] 상해/항주/장가계/원가계 4/5일
대한항공 799,000 부터 ▶(4일) 매주 수, (5일) 매주 토
동방항공 764,000 부터 ▶매일출발
광주출발 >> 백두산
심양/백두산/북경 5일
749,000 부터 ▶4/23부터 매주 일요일 출발
봄맞이 특가 골프 시리즈
골프상품 공통사항
399,000 시리즈 ★Golf Tour
태국 후아힌 골프 5일
399,000 ▶4/9,16,19
499,000 시리즈 ★Golf Tour
중국 청도 골프 3일
499,000 ▶4/17,18,19
649,000 시리즈 ★Golf Tour
일본 후쿠오카 골프 3일
649,000 ▶4/11,18,19
849,000 시리즈 ★Golf Tour
괌 골프 4일
849,000 ▶4/12,19,26
동남아 할인감동 시리즈
동반 1인 10~5만원 할인! or 동반아동 50% 파격할인!
인천출발 동남아시아 전상품 NO TIP!
동반1인 10만원 할인 방콕/파타야 5일 649,000 ▶4/20,27
동반1인 10만원 할인 홍콩3일/삼판수상마을투어 599,000 ▶4/8,12,15,19,22,26
동반1인 5만원 할인 싱가폴 리사센토사(1일자유) 5일 749,000 ▶4/9,16,23,30
동반동반 50% 할인 세부 막탄상그릴라 리조트 골드 4/5일 799,000 ▶4/12,13,19,20,26
아동동반 50% 할인 푸켓/피피섬 크리온프리자 6일 849,000 ▶4/11,18,25
인천출발 중국
장사/장가계/원가계/황산채 5일
북경/만리장성/장가계/원가계/황산채 5일
북경/만리장성 4일
성도/구채구/황룡 6/7일
749,000~999,000
인천출발 일본
[정통]"설렉게봉" 다케야마 알펜루트 쿠로베 협곡 4일
699,000 부터 ▶4/12,14
규슈 온천여행 4일
629,000~1,099,000
신일본일주 5일
899,000~1,199,000
인천출발 유럽
베니스와 몽파리우 유럽 4개국 9일
3,190,000
러시아/북유럽 4개국 12일
4,909,000~4,490,000
몽블랑과 중세마을 유럽 5개국 9일
2,690,000
2,190,000
인천출발 미주
캐나다 항공일주 8/9일
1,990,000~2,490,000
미서부일주 7/8일
999,000~1,790,000
인천출발 남태평양
팔라우 5/6일
890,000
790,000
동반1인 30만원 할인 ▶4/13,20,27 특요일 출발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철저히 준수합니다!